



풍요와 부·불성의 상징 '소'

광우병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2008년이 가고 2009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를 맞았다. 12년 전 1997년 정축년(丁丑年), IMF 외환위기 사태로 대한민국이 침몰한 세월을 보내더니, 내년 '기축년'도 나라 인민의 경기 악화로 삶이 고단할 전망이다. '소의 해'를 힘들게 보냈던 우리 삶과 달리 소는 친근하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풍요, 부,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 등의 의미들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소 같이 일한다'라는 말처럼 소는 순박과 우직함, 근면의 대명사다.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동물이다. 특히 불교에서 소는 '인간 심성의 본래 자리'를 의미한다. 경기가 어렵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처럼 우직하게 내 안의 불성(佛性)을 찾는 한해를 보내자.

우리 삶의 소

소는 십이지의 두 번째 자리다. 소띠 해는 12년마다 축년(丑年)으로, 음력 12월은 축월(丑月)로, 일(日)은 축일(丑日)로, 시간은 오전 1시에서 3시 까지만 축시(丑時)로 표기된다. 여기서 축년과 축일은 육십갑자 중 을축(乙丑), 정축(丁丑), 기축(己丑), 신축(辛丑), 계축(癸丑) 등의 순서로 표기된다. 방위는 북북동 방향(丑方)을 가리킨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우리 민족에게 소는 농사일을 돕는 짐승으로 부와 재산, 힘을 상징했다. 농경의 바탕이라는 인식과 함께 부유와 번창이라는 소에 대한 재산 관념이 이를 증명한다. 고려·조선시대에는 매년 농신(農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물로 소를 바쳤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풍년을 기원하는 소놀이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소띠나 고삐를 걸어 악귀의 침입을 막는 축귀의 역할도 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소의 부속물인 뿔, 가죽, 기름, 고기 등은 실생활의 주요 재료로 폭넓게 이용됐다. 소뿔을 쪼개 가공한 화각공예품, 쇠가죽으로 만든 북·장구·소고 등의 악기, 음식 관련 서적에 보이는 소고기 요리 등 다양한 쓰임은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는 말에 함축돼 있다.

특히 소는 종교심의 투영에서도 그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한다. '십우도(十牛圖)' '십우도(十牛圖)'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다. 유교에서 소는 의로움(義)을 상징하며, 도교에서는 유유자적함(悠悠自適)을 의미한다.

십우도(十牛圖)의 의미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라는 뜻을 가진 '십우도송(十牛圖頌)'의 본래 명칭은 '소를 길들인다'라는 의미의 '목우도송(牧牛圖頌)'이다. 열 단계로 나누어 그려졌기에 '십우도송(十牛圖頌)'이라고도 불린다. 잠선 수행자의 수행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아 길들여 돌아오는 과정에 비유해 그림(圖)과 시(頌)로 도해한 것으로 선종(禪宗)의 유행과 더불어 다양한 버전이 전한다.

- ① 심우(尋牛): 동자승이 소를 찾고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본성을 잊고 찾아 헤매는 것은 불도 수행의 입문을 상징한다.
- ② 견적(見跡): 동자승이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수행자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본성의 발자취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 ③ 견우(見牛): 동자승이 소의 뒷모습이나 소의 꼬리를 발견한다. 수행자가 사물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여 견성(見性)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 ④ 득우(得牛): 동자승이 드디어 소의 꼬리를

잡아 막 고삐를 건 모습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佛性)을 꿰뚫어보는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 ⑤ 목우(牧友): 동자승이 소에 코뚜레를 꿰어 길들이며 끌고 가는 모습이다. 얻은 본성을 고행과 수행으로 길들여서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소도 점점 흰색으로 변화된다.
- ⑥ 기우귀가(騎牛歸家): 흰소에 올라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무애의 단계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때이다.
- ⑦ 망우재인(忘牛在人): 소는 없고 동자승만 남아 있다. 소는 단지 방편일 뿐 고행에 돌아온 후에는 모두 잊어야 한다.
- ⑧ 인우구망(人牛俱忘): 소도 사람도 실체가 없는 모두 공(空)임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텅 빈 원상만 그려져 있다.
- ⑨ 반본환원(返本還源): 강은 잔잔히 흐르고 꽃은 붉게 피어 있는 산수풍경만이 그려져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으로 이는 우주로 아무런 번뇌 없이 참된 경지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 ⑩ 입전수수(入塵垂手): 지팡이에 도포를 두른 행각승의 모습이나 목동이 포대화상(布袋和尚)과 마주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육도중생의 골목에 들어가 손을 드리운다는 뜻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아감을 뜻한다.

기축년(己丑年) 불교사

- △ 689년(통일신라 신문왕 9년): 전길(諡吉) 스님 등 50여 명이 일본으로 감.
- △ 809년(통일신라 헌덕왕 1년): 해안사(海眼寺) 창건, 뒤에 은해사(銀海寺)라 개칭함.
- △ 929년(고려 태조 12년): 인도의 삼장(三藏) 법사가 구산사(龜山寺)에 올(930년 입적).
- △ 989년(고려 성종 8년): 조종후(祖宗后)의 제기(齊忌)에 도살육선을 금함. 여가(如可) 스님이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져옴.
- △ 1109년(고려 예종 4년): 문덕전에 약사도량을, 정영전에 우람분도량을 설치함.
- △ 1229년(고려 고종 16년): 고려 강종의 왕사인 화장사(華藏寺)의 대선사 지겸(志謙) 스님 입적.
- △ 1289년(고려 충렬왕 15년): <삼국유사(三國遺事)> 편찬한 일연(一然) 스님 입적.
- △ 1649년(조선 인조 27년): 서산대사(西山大師) 4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소요태능(遯遙太能) 스님 입적.
- △ 1769년(조선 영조 45년): 해인사 대적광전 건립.
- △ 1899년(조선 고종 36년): 해인사 <대장경>을 인각(印刻)해 각 사찰에 분배함. 동대문 밖에 원흥사를 세움.



통도사 십이지변(十二支幡) 중 '소(丑)' (1896년 작).

불교 속 소 이야기

소는 불교와 친밀한 동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소와 인연이 있다. 부처님의 태자 때 이름은 '고타마 싯타르타'였다. '고타마'의 뜻은 '가장 좋은 소', '거룩한 소'란 뜻이다.

선불교에서 소는 불성, 본래면목, 자성을 상징한다. 중국 당나라 때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선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좌선만 하고 있는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에게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소는 마음을, 수레는 육신을 뜻한다.

마조 스님의 제자 남정보원(南泉普願, 748~834) 선사도 '남정의 소(南泉水牯)'를 설법했다.

"나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동쪽으로 끌고 가려 해도 남의 논밭을 지나가야 하고, 서쪽으로 끌고 가려도 남의 논밭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 어디로 가더라도 논밭을 망친 변상을 해주는 도리 밖에 달리 방법이 전혀 없다."

남전 선사가 제시한 소는 보살의 화신이다. 보살행을 성취해 나아가는 남전 선사 자신이고 모든 사람의 본래면목을 뜻한다. 소를 길들이는 것은 분별·집착심을 버리는 수행을 의미한다. 소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에 바탕해 선(禪)의 일상상을 드러낸 일화다.

고려말 수선결사를 이끌었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스님의 호(號)는 번뇌, 망상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소를 기른다'는 목우자(牧牛子)였다.

조선 선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대사(西山大師, 1520~1604)는 <임종계(臨終擧)>에서 진흙소를 얘기한다.

천 생각 만 생각이
붉은 화로의 한 점 눈이다.
진흙소가 물위로 다니나니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여기서 진흙소는 물론 가상의 소이며 헛것이다. 헛것이므로 물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헛것이 아닌, 가상의 것을 통해 가상 이상의 진실을 꿰뚫는, 일체 유위법을 다 무너뜨리고 무위의 법에 도달하는 본래마음을 상징한다. 서산 대사의 진흙소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었던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 스님으로 법맥이 이어져 현묘한 도(道)의 작용을 표현한 '진흙소의 울음(泥牛吼)'으로 되살아났다.

누구나 인생을 살지만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어렵다. 그러할수록 내 본래면목(소)을 길들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도리를 터득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불성이 자신에게 이미 갖춰져 있음을 수행을 통해 자각해야 함을 선사들은 '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리에 대해 청거호승(淸居皓僧) 선사는 목우도(牧牛圖) 12장을, 태백산의 보명(普明) 선사는 목우도 10장을, 불국유백(佛國維白) 선사는 목우도 8장을 각각 제시했다.

구 단 구 궁 법

◆ 저자법화스님 직강

1.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 흥, 성패 직업, 성격, 명운을 꿰뚫는다.
1. 철학을 배웠으나 신통찮으신 분이나 초보자환영
1. 2주 완성 (책임지도)

당신도 2주후엔 『최강자』가 될 수 있다.

I 서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6-22(1층)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뒤
☎ (02)3443-2723 / 010-9399-7442

I 부산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926
미남로터리 금강예식장 뒤 금어산방
☎ (051)554-6040 / 010-9399-7442

남자 39세, 음력 4월 9일 밤 10시 30분

나이	년별결문구	변화기중점	명운합수
31세	④⑧⑧	13 12	13(양화)
32세	⑤⑨⑨	22 21	
33세	⑥①①	31 30	
34세	⑦②②	40 39	안보이는 수 4(음화)
35세	⑧③③	49 48	
36세	⑨④④	58 57	계절오행 4월(음화)
37세	①⑤⑤	67 66	
38세	②⑥⑥	76 75	
39세	③⑦⑦		

- ※ 성격 : 특별 임무자인양 행세하고 남다른 명예심이 있고 개혁적 성향과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자주이사, 변동사치를 좋아한다.
- ※ 직업 : 연예인, 사회운동가, 이론종교가, 드라마작가
- ※ 운 : 파란만장한 일생이 펼쳐진다.

손으로 짚으면 39세 ③⑦⑦문구수가 나온다.

지난날을 보니 31세되는 해는 ④⑧⑧의 문구수로써 돈있는 여자를 만나 32세 ⑤⑨⑨의 수로 이어져 자기 소유의 라이브카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33세때 ⑥①①의 문구수로 연결되어 일년내내 라이브카페 영업이 잘되지 않아 34세 초반⑦번 문구가 오는 시기에 영업장을 다 정리하고 여자와 헤어졌다. 34세 후반 목적은 ②②문구와 35세 전반은 ⑧문구로 ②②⑧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연상의 여인을 만나 재혼했다. 36세⑨④④ 37세①⑤⑤⑤ 38세②⑥⑥⑥의 문구수가 되어 처의 도움으로 거금을 들여 서울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여 경영상의 수지도 좋았고 인기도 상승했다. 그러나 39세 ③⑦⑦의 흥수의 문구로써 가을이나 겨울에 접어들면서 하는일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 망해 버렸다.

54, 55, 56세때 3년 아홉자리 문구수일때 변화기와 명운합수, 안보이는 수 계절오행의 妙術의 충돌로(화극금)불꽃이 일어나 한때나마 인기가가 되고 대성공을 거두겠다.